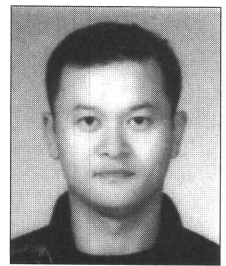


# 앞으로도 농가들에게 유익한 월간 낙농육우로 거듭나길...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낙농육우산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후계낙농인입니다. 솔직히 후계 낙농인들은 낙농육우협회나 조합, 진흥회 등 생소하거나 한번쯤 들어봐서 어렵듯이 알고 있는 이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저 또한 올해 협회 청년분과위 전북도위원장이 되어서 협회를 접하다보니 협회가 뭘 하는 곳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렇듯 후계낙농인들은 기본적인 관련단체조차 잘 알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만 해도 상당수 후계낙농인들이 있고 저는 젊은 낙농인들끼리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도 상당수 후계낙농인들이 있지만 직업의 특성 상 멀리가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어 서로간의 교류가 문제입니다. 월간 낙농육우가 서로 교류하며 정보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농은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생물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1세대분들이 해오셨던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온 후계낙농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후계자교육 등을 다녀보면 한우관련 교육은 다양하게 진행되는 편이나 낙농은 거의 없습니다. 계절별로 한번씩 감사초대해서 사양관리 한번씩 듣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닌, 젊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협회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판단하여 자가조사료의 사용량이 많은지역과 수입건초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교육프로그램 또한 다르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사양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낙농육우인이 있기에 협회가 있고 또 협회에서 낙농육우인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농가에게 유익한 월간 낙농육우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



**서영수**  
협회 청년분과위원장  
전북도위원장